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29호
8월 31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나라·교회 위한 8·15 특별기도회

“광복의 은총” 감사, “국가안보, 민족복음화” 위해 합심기도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목), 나라와 교회를 위한 8·15 특별기도회'가 은혜와진리교회 각 성전에서 동시에 드려져 성도들은 가정되는 안보불안 등 총체적 국난 극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이날 기도회는 안양성전 열림·갈릴리·브니엘 성가대의 찬양, 대한민국 바로알기 동영상 시청,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의 겔 37:22, 23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심'이란 제목의 설교, 합심기도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동호 목사는 “WCC부산총회 이후 우리나라는 우려했던 대로 종교다원주의자와 종북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었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도들을 분란케 하는 등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경제발전의 중요한 토대인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국가의 안보와 교회의 안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 목사는 “WCC를 수용하고 우상숭배에 함께 한 교회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

야 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동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임을 굳게 믿고, 복음전파에 힘쓰고 제 역할을 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설교에 이어서 성도들은 우리나라를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튼튼한 국가안보와 교회부흥을 위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제68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경기도 성평등조례 재개정 촉구

제1회 목회자 평생교육원 교육 일정 공개



의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월) 오후 1시 총회 본부에서 열려 경기도 내본 성평등조례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라의 안보와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각자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광주지방회장 최정식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겔 3:17-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최상, 최고의 정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소중한 정보”라고 말했다. “반면에 세상에서 얻은 정보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여호수아와 겹겹처럼 진실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를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본래로 회의에 들어갔다.

의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교단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는 제7회 청소년연합수련회, 아세아 태평양 하나님의성회(APAGF) 총회장회의 참석, 2019



성교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폐회기도 임종달 목사 증경총회장



개회기도 임종달 목사 증경총회장



축도 이용주 목사 증경총회장



대표기도 최정식 목사 광주지방회장



사회 이경진 목사 총무



전국신학생 연합 개강수련회 개최, 신임 부흥사회장에 임기진 목사(제천순복음교회)가 선임되었음을 알렸다.

이어서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역자

은퇴 보고, 지방회 명칭 변경 인준 건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전국교역자국 추계수련회 개최, 68차 총회 제2회 고시위원회의, 제1회 목회자 평생교육원 교육 일정(10월 17일(목)-18일(금) 1박 2일), 제2차 실행위원회 준비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증경총회장 진동웅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방파제(防波堤)’



조용목 목사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7)

연안의 외항과 내항 사이에 있는 방파제는 해일이 항구에 정박한 배와 시설물들과 해안에 가까운 집들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풍이나 지진이 해일과 쓰나미를 일으키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불안과 근심의 거센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근심의 거센 파도가 마음의 항구와 해안을 휩쓸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여 마음에 방파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 네 가지 방파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든지 삼십 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지도록 하는’ 다리오 왕의 조서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무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감사의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 감사가 방파제 역할을 하여 불안과 근심의 파도가 거세게 밀어닥쳐도 그의 마음에는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기도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염려하게 하는 문제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염려의 파도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염려의 파도를 막아서 소멸시키는 최상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겨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면 이는 하나님의 손에 문제가 맡겨졌음을 의미하는 청신호입니다. 기도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마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는 방파제입니다.

셋째, 찬송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모암, 암포, 마운 연합군이 유대나라를 침공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투철했던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 뜰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찬송하는 임무를 맡은 레위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을 전체가 떠나갈 듯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승리의 예언을 믿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과 같이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감사 찬송을 부르며 전장으로 가보니 보이는 것은 앞도라진 시체와 물자들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연합군들이 피자 살육하여 전멸되므로 싸우지 않고 승리의 결과물인 전리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 떨거나 근심하지 않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염려의 쓰나미가 찬송의 방파제에 부딪쳐서 그 위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넷째, 성경말씀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임신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왔는데 출산일이 가까워 오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출산하는 중에 대출혈이 발생하여 생명을 잃을 위험이 높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자신의 위기극복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신유에 관한 성경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의 충고대로 성경구절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과 평안이 지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사히 해산하였습니다. 그 순간의사가 “이런 일은 기적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말씀의 방파제가 불안과 근심을 막아주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산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불안과 근심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의 파도가 넘쳐 들어올 수 없도록 마음에 방파제를 견고히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방파제, 기도의 방파제, 찬송의 방파제, 성경말씀의 방파제를 갖게 됨으로써 항상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행만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한교연, 8.15광복 74주년 감사예배

“우리민족을 구원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8월 14일(수) 오후 7시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시무)에서 광복 74주년, 건국 7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74년 전 일제의 흑암에서 간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의 인도로 대한민국 건국회 의장 진동은 목사의 기념사,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김병근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바울 목사(호헌 증경총회장)가 ‘광복의 감사와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박만수 목사(공동회장)가 ‘사회 균형과 안정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광준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본질회복을 위해’, 서한재 목사(법률지원위원장)가 ‘자사고 존립, 차별금지법 폐지, 동성애 근절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 군포제일교회 백합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이 둘의 뜻을 설명하라(수 4:19-24)’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암제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 흘린 눈물과 탄식, 신음을 들으시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사용해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후세에까지 비튼 역사관으로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마리아중앙단이 특송을,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광복 74주년 메시지를 낭독했으며, 송태섭 목사(한장총 대표회장)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일제침략 잔혹한 과거 결코 잊지 말아야”

기독교지도자협, 광복74주년 특별기도회 개최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진목 목사·이하 한기지협)는 지난 8월 13일(토) 오전 7시 30분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광복절 74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고, 일제침략의 잔혹한 과거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선조들이 순교로 이뤄낸 광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한기지협의 시국선언문이다. 한기지협은 시국선언문에서 일제 침략과 현 일본의 태도에 대한 울고 그들을 확실하게 했다. 일본에 분명히 죄를 물으며, 그에 대한 반듯한 사죄와 보상, 역사적 인정을 요구했다.

먼저 일본의 만행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온갖 착취와 젊은 학생들을 총알받이로 사용하고, 찢어진 치녀들은 취업이란 명목으로 전쟁터 성노예로 삼았다”면서 “일본의 천인공노할 만행에도 우리는 분노를 삼키며 살



아야했던 수치를 겪어야 했다”고 울부짖었다.

일본을 향한 강력한 비난과 단호한 경고도 전했다. 한기지협은 “아베는 기증스럽고도 후안무치한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며, 미 치장이처럼 날뛰고 있지만, 침략국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으로 한 순간에 우방국에서 적대국으로 전전포고 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모든 것을 원위지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기지협은 “우리 국민은 일본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맞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면서 “정부는 정치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해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예배는 대표회장 신진목 목사의 사회로 이규희 목사(우리총회 총회장)의 기도 에 이어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가 “다시 일어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사)한기개협 등 3개 단체 연합으로 열려



(사)한국기독교교회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이하 한기개협)는 지난 8월 12일(월) 여전도회관에서 (사)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총재 김관현 목사,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이하 세계연), (사)한국기독교교회교단협의

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이하 한기개협)와 기입교단 관계자들이 모여 제74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한기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세계연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의 대

표기도, 예장열방총회 총회장 김분희 목사의 성경봉독, 개혁신당중앙의 찬양과 예장정통총회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연주로 진행됐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세계연 총재 김관현 목사는 왕상 17:1, 18:41-4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아! 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한기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인사말과 만세삼창 인도에 이어 한기개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기보협, 광복74주년 8.15 감사예배

일제 압제 36년 마음깊이 새기고 일본 복음화 앞장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8월 13일(토)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한기보협 비전센터에서 광복74주년 8.15기념 예배 및 이인수 박사의 특강시간을 가졌다.

1부 기념예배는 김영호 목사(법인이사)의

사회로 예장(예지)총회 총무 김성립 목사의 기도, 예장(예지)총회 김해용 목사의 특별찬양,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갈 5:1절을 본문으로 한 ‘자유조국’이란 주제로 설교를 했다.

한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 36년간 일본에 통치를 받게 했는가? 이 민족에

게 광복이란 날을 주시고 왜 해방이란 이름으로 남북이 갈라졌는가. 우리가 살면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알아 다시는 종에 땅에를 지지 말아야 한다. 보수교단은 현시대를 위해 말씀, 기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보복하지 말고, 일본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복이란 축복의 선물을 주셨다. 이를 위해 싸운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의로운사회를 사람의 실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위원장 도경음 목사의 봉헌 찬양, 예장(예전)총회 사무총장 오동환 목사의 봉헌기도, 공동회장 진봉렬 목사의 격려사, 한기보협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말,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한국문서선교회 회장 박영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 장학금 전달

학생·홀사모 등 33명에게 감동의 선행

목회자 유가족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감독)는 지난 8월 14일(수) 오전 11시 감리회본부교회에서 2019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동 운동본부는 이번 수여식을 통해 대학생 15명, 고등학교 8명, 중학생 4명, 초등학교 3명, 홀사모 3명 등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별히 올해는 운동본부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 감격이 남달랐다. 그간 운동본부는 총 10여 억 원의 장학금을 유가족 자녀들에게 전달했으며, 그 수혜를 입은 아이들이 수백여 명에 이르러 수혜자 중 목회자는 물론 군 장교, 물리치료사, 대기업연구원, 공



무원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가족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호 전 감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하라고 건강을 허락하신 듯하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까지 이 사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우리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은 훌륭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함께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독실업인으로서 역할과 사명 찾는다

제46차 CBMC 한국대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 62:10)’ 주제로

제46차 CBMC 한국대회가 지난 8월 13일(토)~15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외 회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 62:10)’라는 주제로 조직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기독실업인으로서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찾기 위한 예배와 워크숍,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개막식이 열린 13일에는 개막을 알리는 공연으로 포항극동방송이런이합창단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국악전양과 부채춤을 선보였다. 이어 국내 31개 연합회와 해외 4개 총

연합회의 가수단이 입장했다.

이승을 대회장은 “한국대회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는 말로 개회를 선언했으며 대회 준비위원장 원종식 회장은 “CBMC가 일터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팀집과 니의 소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 주 강사로는 두레수도원 김진홍 원장과 조서환마케팅그룹 조서환 대표, 향기내사람들 임정택 대표, 국제푸른나무재단 박수광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첫째날 저녁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조서환 대표는 ‘마케팅 전략과 창조경영’이란 제목으로 회원들에

게 실재적인 경영전략과 비즈니스 세계에 지평을 열기위한 성경적 경영을 소개했다.

한편 대회 둘째 날에는 경북지역의 대학생들과 청년을 준비하는 차세대 청년들을 위한 초청집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집회에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청년과 예비창업자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젊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축하공연과 강연이 진행됐다.

본월도 최복이 대표와 르호봇비즈니스인 큐레이터 박광희 회장, 씨엔티테크 전화성 대표이사, 주안대학교대학원 유근재 교수 등이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했다. 록 밴드 ‘몽니’의 김진익의 공연에 나섰다.

2019 HOPE 베트남 단기선교 개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교두보 마련

2019 HOPE 베트남 단기선교가 호프월드 미션(대표 김용국 목사, HWM) 주최로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하노이와 주변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주변도시인 엔트, 하롱베이에서 가진 이번 단기선교는 한국에

서 35명이 참가 현지 선교사와 교회들과 함께 상호협력해 선교의 지평을 넓혔다.

둘째 날 HOPE베트남 선교단원들은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의 신학교와 교회를 방문했다.

하노이교회 교단 총회장과 임원들은 베

트남 선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HWM과 협력하여 베트남선교를 진척시키고 싶다는 협조를 당부했다.

HOPE 바이올린 팀, 소프라노 이기원 교수의 ‘You raise me up’ 특송, 홍정숙 선교사의 국악위상에 이어 모두 함께 손잡고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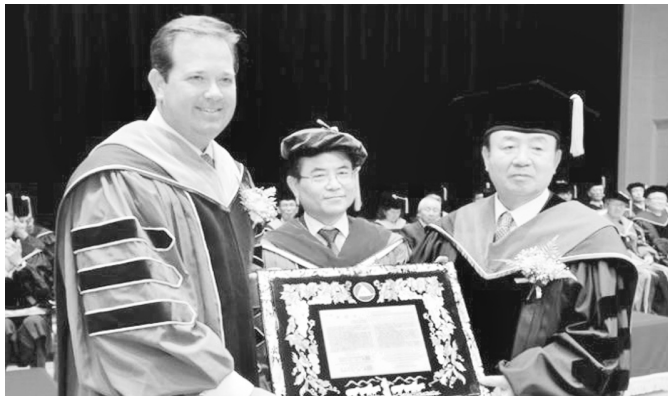
베트남 지하교회인 에루살렘교회에서 00 담임목사는 “베트남 인구가 1억 정도인데 기독교는 1%밖에 안 됩니다. 99%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기 기대합니다.”라며 베트남 지하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베트남선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백석대 2018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달라스침례대학교 아담 라이트 총장 명예기독교교육학박사 학위 받아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14일(수) 백석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학위 390명, 석사학위 316명, 박사학위 18명, 명예박사학위 1명 등 총 72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실전신학대학원 ATA 과정 83명의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침례대학교(Dallas Baptist University) 아담 라이트 총장(Adam C. Wright)이 명예기독교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아담 라이트 총장은 “이번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제 기쁨은 물론 오는 학위모를 쓰신 많은 분들의 졸업을 축하한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달라스침례대학교 아담 라이트 총장은 달라스침례대학교 출신으로 동 대학에서 석사, 박사, 대학 입학관리처장, 기획부총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한마음교회 필리핀 단기선교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는 지난 8월 18일(주일)~22일(목)까지 청·장년부 성도 21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불병거교회(이응수 선교사)와 아이파 산지부족이 거하는 곳으로 단기선교사역을 다녀왔다. 이번 단기선교사역은 올 봄에 선교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해서 선교기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었다.

필리핀 나보타시 마약사범교도소 내의 재소자들을 위한 감정고시반을 운영하는 불병거교회 성도의 소개로 마약사범 재소자들 중에 67명의 감정고시 합격자를 위해서 복음전파와 함께 졸업식 행사비를 전액 후원하여, 나보타시 시장과 국회의원,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성대히 치러 주었고 교도소장으로 부터 감사장을 전달

받았다. 또한, 아이파 산지부족과 도시 내 빈민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의류배분, 치료사역, 미용사역,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봉사 등과 함께 복음을 쉽게 이해시켜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주었고, 나보타시에 소재한 탕고초등학교를 방문하여 15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함께 각종 선물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다.



전국기독교연합회의 집회 위한 중보기도 당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용 목사)는 지난 8월 14일(수) 오전 7시 온양성결교회(이재두 목사 사무)에서 제8차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먼저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는 환영사를 통하여 “해수의 피를 잊지 말아야 하듯 선현들이 흘린 피를 잊지 말아야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기를 힘쓰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지분위원 최순식 목사(새원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이재두 목사(온양성결교회)

의 대표기도, 고분 강상철 목사(시온감리교회)가 2:1-10 말씀을 본문으로 “역사의 교훈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강 박사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들을 열거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교훈하였고, 여호수아는 유언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중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며, 회개해야 소망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동회장 박노섭 목사(삼광교회)의 사회로 가진 제목기도 시간에는 “진정한 8·15광복을 위하여” 지분위원 박정영 목사(아산큰빛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아기연발전을 위하여” 서기 정진학 목사(엘사광교회)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도위원 서석용 목사(아산성결교회)가, “아산시 성지화를 위하여” 부회장 이기연 목사(비전성결교회)가, “성평등정책과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박해서 장로(후원회)가, “아산시지도자들을 위하여” 회계 김이래 목사(새원교회)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공동회장 황기식 목사(동산정교회)의 사회로 가진 보고회에서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서경석 박사는 “시국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보수진영의 대단결이 요구되는데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바른인권위원회에서는 충남도의회에서 지난번 통과시킨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8·15 광복본지와 10월 3일 전국기독교연합회의 집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당부하였다.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는 천국의 삶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8월 22일(목) 오전 11시 물산동산교회(담임 옥경숙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

방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박영욱 목사(순복음점종교회)의 사회로 재무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천교회)의 대표기도, 안병섭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안 박사는 마 20:1-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세상원리 하나님나라 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원리는 일한만큼 능력대로 보상하지만, 하나님나라는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공화와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풍성한 나라이기에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 된다”고 전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환영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길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월례회는 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각종 지방회 업무를 처리한 후, 특별히 최성진 목사(울산은혜와진리교회)가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8월 13일(목) 오전 11시 효령순복음교회(담임 윤두환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효령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이정옥 목사(산성교회)의 기도, 부회장 조광선 목사(순복음반석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 박사는 마 6:33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신앙강해를 나누었다. “천교사의 신앙을 전수 받은 중조부 때로부터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순교하신 조부님, 그로 말미암아 유복자로 태어나신 부친께서 일제에 징집되었다가 수송선이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되는 가운데서 서원기도로 극적인 생환을 한 후 주의 종으로 되셨다”라며 조 목사 자신과 아들까지 그 길을 따라 가는 가운데 6대에 걸친 신앙의 가정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조 박사는 “나와 내 가정의 인위를 좇아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가



운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되돌아보니 더할 수 없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였고, 모든 회원들은 은혜롭고 감동적인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이어서 회원들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각 개교회와 회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회계 김정순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헌금기도와 중경회장 윤장현 목사(송천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사회로 각종 회무 처리를 하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재무 이정옥 목사(산성교회)는 지난 7월 31일 소천하신 김인숙 사모(윤력한 목사, 행복교회)의 장례에 경조회로 100%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회원들은 교회 옆 계곡에 자리 잡고 효령순복음교회(담임 윤두환 목사)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탁바지 더위를 식히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오랜 시간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계단합대회 갖고 인내하는 목회 다짐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정운기 목사)는 지난 8월 19일(월) 전북 운주계곡에서 하계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단합예배는 총무 이만규 목사(좋은나무교회)의 사회로 김형사바 목사(순복음목자교회)의 대표기도, 중경 지방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박사는 약 5:7-11 말씀을 본문으로 “길이 참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목회는 길이 참는 것으로, 마 24:13 말씀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리라’고 하셨다”라며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사람과 환경보다 지 말고 오직 주님과 버리고 묵묵히 길이 참아 승리할 것”을 선포했다. 이어서 말씀을 붙들고 합심기도한 후에, 김희자 전도사(초심



교회)의 헌금기도로 감사예물을 드리고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지방회 여러 회원, 성도들의 아낌없는 후

원과 귀한 섬김으로 맛있고 풍성한 식탁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에서 마음껏 뉘뉘며 즐기고 기쁜 행락한 시간을 가졌다.

말씀충만 성령충만, 신령한 즐거움 ... 중·고등부 하계수련회



은혜와진리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의 여름수련회가 지난 7월 26일~27일, 8월 8일~10일 두 차례로 나누어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열렸다.

올해 교회학교의 교육 주제인 ‘진리(요 14:6)’를 공통의 주제로 하고 ‘은혜충만 진리충만(요 1:17)’ 등 다른 부제와 프로그램으로 각각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 학생들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 더 굳세어진 믿

음으로 변화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였다.

교회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과 신앙관을 심어주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였다.

구원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는 특강

과 예배, 우리나라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리의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좌익이 관영한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체험학습과 경건훈련, 성령충만기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도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물세례식, 조별·성전별 축복의 시간,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 등 은혜롭고 즐거운 순서들이 2박 3일 동안 이어졌다.

생명의 말씀



유흥열 목사
· 강원동지방회 중경회장
· 열린교회 담임

“우리가 알지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중간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영혼사역을 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 저를 세우셔서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합력하여 오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축도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일부만 감당하였고, 또 중간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물질로, 재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전 3:6-8)

그런데 어떤 골조를 맡았던 건축업자는 건축의 수많은 공정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 교회 내가 지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에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한 직분자가 마치 내가 다 지은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 그 일에 참여했을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 쓰임 받는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오히려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셨는데 “왕이여 이 나라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단 4:22)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사람에게서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단 4:25).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부갓네살

은 마치 자신이 이 큰 왕국을 이룬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였고 다니엘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 주신 대로 1년 후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단 4:28-31)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 속에서 자주 ‘내가 했다’고 속삭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졌고 내가 잘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성장했고, 내가 잘하고 뛰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속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가지는 교만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는 무서운 죄악된 행위입니다.

결국, 이렇게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뭘 했

다’고 자만하며 살다가 망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목적에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극히 작은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밀알이 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우리가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만 결국, 이 인류 역사에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불태우고 한 부분으로 써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6)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전 3:6-8)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 수고하였으며, 결흔도 하지 아니하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 아블로를 심어 물을 주고 가꾸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바울과 아블로의 공로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로배를 받고 자기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즉 자신과 아블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어 자라게 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무리 심고 물을 준다 하여도 그 속에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한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착각하여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주 교만하고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살다가 영적으로 망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원래 모습인 ‘원형’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근자에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후보자가 전에는 ‘타율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말을 했다가, 후보자가 된 후에는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물이라고 정치권에서는 반박하고 있다.

그런 데다 지난 7월 29일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대표의원 김성수, 박광운, 박 정, 박용근, 서영교, 신경민, 안구백,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전해철 의원)이 ‘방송법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707)을 내놓은 상태이다.

언론이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사회적 등불의 역할이 되겠지만, 권력이 아부하고 발불어 따라가면 그림판보다도 더 어두운 세상이 되고, 그 어둠으로 인하여 불행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동 정

나사렛대 윤문기 이사장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은 지난 8월 26일(월) 나사렛대학교 장학관 7층에서 제13대 이사장으로 안중 나사렛교회 담임 윤문기 목사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교수협의회장 이준호 교수, 직원노동조합 조태형 지부장, 총동문회장·대학협의회회장 오세한 목사, 중경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장총, '장로교의 날' 미주에서도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장로교의 정체성과 본질 회복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장로교의 날’을 미주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장총 미동부지역연합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지난 8월 24일(토) 금강산 연회장에서 조찬기도회 후 열린 임원회의에서 ‘미주 한인 장로교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남대, 국내 첫 창의수업



한남대(총장 이덕훈)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학위를 수여했다고 지난 8월 22일(목) 밝혔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교내 공모를 통해 선발된 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달 1일부터 컴프렉스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 소재 혁신파크 등을 직접 찾아 컨설팅을 받았다.

LA에 선교사 심터를



글로벌 크리스찬센터 대표 김미선 교수가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미국 LA에 건립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한국 혹은 기타 지역을 방문할 때 쉬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선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언론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광화문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연합 등 보수 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단체들이 모여 집회를 하였다. 진보 쪽에서는 반일과 반야당 집회를 하였고, 보수 쪽에서는 반정부와 반일 집회를 하였다. 규모 면에서는 진보쪽 집회 인원이 보수쪽 집회 인원보다 훨씬 많았지만,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이었다.

진보든, 보수든 그들 나름대로 광복절을 맞아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완전 진보 집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들이 민주노동당 소속이란 것을 모를까봐 그런 것인가?

정말 한국의 언론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진보의 목소리는 소수라도 크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보수쪽의 집회는 제대로 취급도 하지 않는다. 그럼 보수쪽 국민의 목소리는 개·돼지로 본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8월 16일 자 KBS 공영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에 보면, ‘이날 보수쪽 집회에 대하여 MBC와 SBS는 저녁 8시 메인 뉴스에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진보쪽 집회는 여러 건을 집중 보도하였다.

또 KBS 공영노조는 말하기를 ‘KBS 9시 메인 뉴스에서 반일 집회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후, 뉴스 끝에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촛불시위들과 대치하기도 했다’고 잘못된

보도를 지적한다. 아예 광화문 사거리-시정-남대문로까지 이르는 인파를 3천 명으로 보도한 말인가?

그 외에 YTN을 비롯한 여러 뉴스 채널들도 진보쪽 집회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외세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방향을 잘못 정하여 흔들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언론들도 비슷한 양상이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모두 진보쪽 내용만 보도하고, 국민일보, 한국일보에는 진보쪽에 치우친 보도를 했으며, 조선일보만 진보·보수쪽 집회에 겨우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다.

수십만 명 국민의 외침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꺼리는 것을 과연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언론을 믿을 수 있는가?

지금 한국에서는 기존의 언론과 방송을 보지 않았다(믿지 못하기 때문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 대한 시청률을 살펴보면 8월 19일 기준으로, KBS 9시 뉴스 시청률 9.0%, MBC 8시 뉴스 시청률 2.3%, SBS 8시 뉴스 시청률 4.4%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들에게 현장감과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유튜브가 인기가 있다.

http://agpgs.aogk.org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치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장양식) 1부
- 반영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성경적 창조신앙 바로 세운다”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 개최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 교수)가 오는 9월 23일(월)부터 9월 30일(일)까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한 동 대학교, 선한목자교회, The Nations International Church, 주님의교회, 남서울교회에서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성경적 창조신앙을 바로 세워 믿음의 온전케 하는데 기여하고자 미국 창조과학 단체인 AiG (Answers in Genesis)의 석학을 초대하여 함께 공동 콘퍼런스로 준비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안내〉

- 9/23 ~ 9/25(월~수) : 성경적 창조론 해외 석학 특별 강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9/26(목) : 창조과학 특별 세미나 / 한동대학교

- 9/28(토) : KACR-AiG 공동 패밀리카 콘퍼런스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일반 세션) / 선한목자교회

- 9/29(주일) : KACR-AiG Church Ministry / The Nations International Church, 주님의교회

- 9/30(월) : KACR-AiG 목회자 선교사 리더스 콘퍼런스 / 남서울교회

* 날짜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화제는 다릅니다.

- 9/28(토) :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일반 세션 -> 20,000원 (~9/18 까지) / 25,000원 (9/19-마감까지, 선착순 마감)

- 9/23~25(월~수) / 식사 별도 부담, 9/26(목), 9/29(주일) : 화비는 없습니다.

- 9/30(월) : 목회자 선교사 리더 콘퍼런스 -> 10,000원

* 참가 신청 : 한국 창조과학회 홈페이지 (<http://creation.kr>)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32-125115-13-201예금주: (사)한국창조과학회

문의처 : 한국창조과학회 (02-419-6465 / desk@creation.kr)

성평등조례 반대·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는 즉시 개악 성평등조례를 재개정하라”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개악 성평등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경기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논란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고, 위법한 성평등조례로 인해 야기될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23일(금) 경기도의회 앞에서 '동성애 옹호 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 31개 시군기독교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경기도민을 거짓으로 기만하는 박옥분 도의원은 사조하고, 도의회는 즉시 개악성평등조례를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박옥분 도의원은 마땅히 도민 앞에 서고대좌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여러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의 음해라는 모욕을 하고, 성평등조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조례에 사용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것이고 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로 도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박 의원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도민의 대표로서의 인격을 존중해주시고 자참고 인내해 왔으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부득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박옥분 도의원이 그동안 어떻게 도민들을 갑갑같이 속여 왔는지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며 “2015년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맞도록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은 바로 박옥분 도의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돼온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5년 11월 24일 개최된 제304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은 상위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통일하게 조례에 적용해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위법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회의록 10페이지). 그러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후 12월 15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이 됐다.

이후 박옥분 도의원은 2015년 12월 17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개정 의미’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내용은 조례명과 내용이 상위법과는 달리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여가부에서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양성(two sex model)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여성 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별 구분을 함으로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더 나아가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 인종, 장애여부와 성적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그에 따른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하지 않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잘못됐다는 설명도 했다.

이들은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곧 ‘건강가족증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도리어 강화하게 되는 이유도 그때문이다”라고 쓴 부분”이라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부일처제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틀렸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도의 성평등조례는 많은 의미가 있고,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기본조례가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성평등기본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며 “다시 말해, 동성애와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성평등이 올바른 것이고, 남녀 성별 2분법 제도와 일부일처제의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박옥분 도의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과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2015년에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박옥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양성평등’을 선택함으로써 동성애(성적 지향)와 제3의 성을 제외시킨 것이 ‘타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 도의원은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 여성 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칼럼을 마쳤다”며 “경기도 성평등조례가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명칭을 택한 것만을 스스로가 이렇게 자처해 밝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다수 경기도민들이 박옥분 도의원에게 이처럼 위험한 성평등조례를 재개정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박옥분 의원은 그에 대한 답으로 “저도 성소수자 조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 저도 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입니다.”, “제 조례는 불법이 아닙니다.”, “남녀차별과 관련한 조례입니다”라는 답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후 이들은 박옥분 도의원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박 의원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것입니까? 2015년에 인천일보에서 밝혔 것과 같이 자신의 확고한 이념을 뒤흔들지 말하지 못하고 감추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답을 촉구했다.

- 건강한국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하는 조국, 지명 철회하라”

동반연 · 동반교연 · 서울대트루스포럼 촉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지난 8월 16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원평 교수(동반연 실행위원장)는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조국 지명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는데, 조국 지명자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조국 지명자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인원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2조(제간 기타 추행죄)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형법 제2조5를 위헌이라 주장했고, 또한 조국 지명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거부를 옹호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자유’라고 강변했는데, 조국 지명자의 이러한 주장은 종교적 병역거부의 99.3%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은 양심적이고, 이를 반대하는 주장은 비양심적이라고 보는 평행선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제양구 교수(동반교연 중앙실행위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양심에 따른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은



차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국 지명자의 사고가 매우 독선적임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동성애 반대 자유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서울대트루스포럼은 강력히 반대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성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천명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임을 그동안 수차례 판시(대법원 1973.9.25선고73도1915판결, 헌법재판소 2001.6.27.선고 2001헌바70결정, 2011.3.31.선고 2008헌가21결정)해 왔다. 이에 대하여 조국 지명자는 자신의 논문(《국, 군형법 제2조의5 제간 그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291~316쪽,

2011.03.02)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

조국 지명자는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 인터뷰에서 조국 지명자는 ‘타인을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는 표현이 아니며 법적 강제를 하는 것이 옳은 법정책’ (여성민주회, [만차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릴레이 인터뷰 (4) 조국교수도 지지합니다, 2011.15.15. <http://www.womenlink.or.kr>)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성적 추행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현오, 경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따라 여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2019. 8. 16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서울대트루스포럼

홈페이지 :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경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액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2019신학생 연합 개강수련회

'거룩한 능력을 덧 입자(요 17:7)' 주제로

조용목 목사 특강, '바른 성경관, 바른 목회관 최고의 가치'

개회예배 설교



신재영 목사
총회장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산하 전국 신학생 연합 개강수련회가 지난 8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1박 2일간 은혜와 진리수양관에서 총회 신학발전위원회(위원장 윤경현 목사)와 신학교리국(국장 임형순 목사) 주관으로 총회신학교 및 지방 신학교재 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거룩한 능력을 덧 입자(요 17:7)'라는



윤경현 목사
신학발전위원장



임형순 목사
신학교리국장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신학생들은 굳건한 믿음과 충만한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더욱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뜨겁게 기도하였다.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첫날 특강에서 "복음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성경적인 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비전을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신학생들이 되도록 격려해 주었다.

조목사는 또 "목양자로서 양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바르게 전해야 한다"고 전하고 "양떼들에게 독초를 먹이게 되면 이는 곧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릇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므로 보다 철저한 말씀의 지식을 깨달아 알아야 함"을 당부하고 신학생들을 축복했다.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를 비롯 직전총회장 임용재 목사,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증경총회장 김민찬 목사, 증경총회장 김양인



목사,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 등 여러 신학교 교수들이 이어진 성령대명회와 특강에서 설교와 강의를 맡아 은혜로운 시간을 인도했다. 교단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롬 1:15-16 말씀을 본문으로 '자랑스러워 함과 부끄러워 함'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

해 "신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며 바울처럼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여 나가는 사명자의 길을 갈 것"을 당부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신학생들을 축복했다. 이밖에 변원식 목사가 인도하는 신학교 소개, 장기자랑 시간을 비롯 간담회 및 다양한 순서를 통해 신학생들은 신령한 지식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2학기 면학의 재비를 마쳤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물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4)호흡기, 위

- 1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1 면역력 증가

6)칼슘

- 1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달걀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1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1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1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생화사진품(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세계선교의 비전을 꿈꾸는 과산순복음교회

기도의 용사들과 전 세계에 복음을

1. 교회와 담임목사 소개



담임 기호선 목사

과산순복음교회(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충북지방회)는 충북 과산군 문광면 과산로 송평길 105-7에 있습니다.

기호선 목사가 담임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부터 80세 넘은 어르신까지 2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공동체입니다. 기호선 목사가 아내와 두 남매와 함께 과산에서 산



지는 이제 20년이 되어갑니다.

2. 과산 지역 소개

과산은 지적도상으로 남한의 중심입니다. 최근에는 과산으로의 귀촌, 귀농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넓은 땅에 비하여 인구가 4만이 안 되는 작은 군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고, 어느 농어촌 군이 그러하듯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군내에 대순진리교에서 세운 '중원대학교'가 있고, ROTC와 학사장교 등을 육성하는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있습니다. 아직은 복음화율이 낮고, 노인 인구율과 자살율이 높은 땅으로 남한의 중심인 과산에서 부흥이 일어나 동서남북에 부흥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3. 혈문산 기도의 집

기호선 목사가 원목으로, 기호선 목사의 어머니(김남순 목사, 예하성 경기남지방회 소속)께서 섬기고 계시는 '혈문산 기도의 집'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178-8에 있으며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사 목사를 모시고 집회가 열립니다.

다. 여름과 겨울에는 수련회하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개인과 단체가 어느 때든 지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고, 열병에서 와서 열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4. En Hakkore 소개

과산지역 중고등학생의 기도모임으로 시작된 초교과 기도모임 및 선교회 'En Hakkore Ministry' 앤학고래 미니스트리('앤학고래'는 사 15장의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를 세워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파를 초월하여 15명 정도의 중·고 청년들이 매주 모여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는데, 장로교 통합 측과 합동 측 목사님께서 함께 협력하시고 기호선 목사를 주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매일 말씀묵기와 말씀암송, 매일 한 시간 이상 통성기도를 생활화하고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훈련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전도 : 겨울에는 일주일 동안 제주

에 가서 거리전도하며 예배드리고, 여름에는 일주일 동안 국내의 주요 도시 및 도서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고 그 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올 여름에는 해남 땅 끝에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마삭도라는 섬에 갔습니다. 섬 전체 인구가 9명인 섬에서 묵회하고 계시는 여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와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돌아왔습니다.

해외전도 : 주님께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연계된 교회 또는 기도원 또는 학교에서 묵으며 예배와 거리전도를 하고, 연중 수시로 러시아의 연해주(블라디보스톡 주변) 땅에 나아가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함께 북한과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는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이 이곳에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연해주는 일본에서 시작되는 Asian Highway아시아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아시아 32개국을 횡단하는 전체길이 14만km의 고속도로망) 6번 도로의 통과지점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중앙아시아와 이슬람권에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곳기에 이곳에 이미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홍통한 군사 : 2016년부터 설명절과 추석연휴 기간(3박 4일)에 전국에서 12명의 청년들을 모집하여 말씀 및 기도와 전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올 해부터는 시니어(40세 이상)도 모집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맺는 말: 작지만 남한의 중심인 과산에서



다음세대를 세우며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쁨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윗 처녀와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요. 충북 과산군 문광면 과산로 송평길 105-7 과산순복음교회 0105145-3816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궤양 (위 보호 효과) :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살균), 항알러지 작용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 혈전 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억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짭은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먹어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쥬스 또는 샐러드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농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교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504076-02-072136 (예금주 김갑신)

구입문의 010-3621-4853

환돌 아로니아 농장 전라남도 여수시 삼암동 8길 38

홈페이지 : www.ucts.org

2019학년도 제1 학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의.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8일(수)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 서 접 수 : 2019년 7월 8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장연, 제74회 8.15 광복절 국가기도회

8.15의 구국 희생정신 반드시 기억해야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빼앗고, 우리 민족의 고귀한 업을 짓밟은 일제 침략 88년의 잔혹한 억압의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하신 광복절이 어느덧 74주년을 맞았다.

이에 일제의 잔혹한 억압과 협력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지켜왔던 선조들의 강건한 정신을 본받고, 앞으로는 갈라진 남북의 하나됨을 위한 특별한 기도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이하 예장연)는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23 소제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원장 김수영 목사)에서 제74회 8.15 국가기도회를 열어, 한국교회를 향해 8.15의 숭고한 의미와 구국과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길 것을 다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제 만행을 기억하자!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예배는 지분위원 주요한 목사의 사회로 국가안보와 일제 36년간의 만행을 생각하며 기도한 후 총무 이후현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차요한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보수총회 임원진의 특송 후 고분 김원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사 2:4-8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 사랑'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인생에 데릴 수 없



는 축복이요 광복이라고 전하고 이 놀라운 은총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회원들이 되어야함을 전했다.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시간으로 △지광식 목사(인천축복교회)가 '국가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원동인 목사(예장합동통신 총회장)가 '국회와 정계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하여', △김병선 목사(씨문위원)가 '한국의 국방안보와 사회, 경제발전을 위하여', △하석수 목사(화계)가 '8.15 광복절과 일본의 만행과 경제보복에 대하여', △오신미 목사(삼일교회)가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하여', △김태지 목사(간사)가 '예장연의 단합과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김기형 목사(교분)와 영장호 목사(교분)의 격려사, 예장합동전국연합총회 임원진의 헌금찬양, 순

영란 목사(지도위원)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이번 기도회를 이끈 예장연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8.15 정신이 점점 잊혀져가는 현실과, 이 시대의 위기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일제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해 개인의 모든 이익을 버리고 하나로 힘을 모았던 선조들의 두려움 없는 희생과 기록한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장 김수영 목사의 인사말, 삼일회장 안병삼 목사의 인도로 제74주년 8.15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애국가를 부른 후 총무 정회일 목사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하였으며 교분 김수영 목사의 축도로 74주년 8.15 국가기도회 및 예배를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천기총, 신천지 거부로 단독 토론 진행

"스스로 진리임을 부정하고 거짓임을 시인한 것"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천기총)가 지난 8월 22일(목) 오후 천안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패지홀에서 '신천지(이만희)의 거짓을 밝히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천기총은 신천지 측에 공개토론에 나와 줄 것을 제안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천기총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처음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지만 이후 토론 상대로 천기총이 급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토론을 거부했다.

다만 천기총은 극적으로 신천지 측이 토론장에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이만희 씨와 그가 추천하는 대표자가 앉을 수 있도록 두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천기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및 공개토론 관련 성명에서 "공개토론은 신천지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단어"라며 "공개토론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음이고, 성경에 자신이 있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성경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만희(신천지) 씨가 자신이 기성교회에 공개토론을 요청했지만 기성교회가 응한 적이 없다고 홍보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천기총은 "본래 토론 대상자로 생각한 것은 이만희 씨였다. 그럼에도 신천지전안에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 신천지전안에 먼저 제안했다"며 "신천지전안은 (공개토론에 대한) 내용증명이 오고가는 중에도 번복을 일삼고, 협의 자리에서도 열도당토않은 조건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공개토론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토론을 결렬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였고, 결국은 자리를 떠났기에, 이만희 씨에게 직접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며 "이만희 씨로부터는 토론 대상자로 급이 맞지 않는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했다.

천기총은 "누구라도 제안한다면 토론에 응하겠다는 말과는 상반된 반응이었다"며 "이에 더 이상 협의를 통한 공개토론 개최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단독으로 공개토론을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개토론 거부하는 신천지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신천지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후로 신천지는 스스로 진리임을 부정하고 거짓임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천기총이 성경 말씀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신천지를 조사해 흠집 내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제안한 토론 방식을 천기총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기총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이날 천안에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천지와 천기총 공개토론 개최'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가졌다.



어린이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

"영어로 성경을 노래해요" CTS JOY어린이영어합창단 원데이캠프 개최

어린이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각 교회에서 인기몰이 중인 CTS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이 지난 8월 12일(월) CTS기독교TV에서 전국에 어린이단원 180여 명과 인솔 교사 및 학부모 90명 등 총 2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뮤지컬 영웅의 주연배우 양준모를 비전특강의 강사로 초대해 원데이캠프를 개최했다.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가 다음 세대 전도와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아심차게 기획한

CTS JOY 어린이영어합창단은 미국에서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심다바이불>을 교재로 사용하며 여기에 영어교육, 합창과 안무 교육 등을 접목하여 요즘 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 주고, 지역 교회에는 새로운 전도의 도구로 주목 받고 있다.

본 합창단을 맡고 있는 CTS라디오JOY 강병준 사장은 원데이캠프 환영사를 통해 CTS JOY어린이영어합창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의 빛이 되는 아이

를 양육 하는 것에 그 운영의 목적이 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오후 행사에는 게그우먼 김선정과 안부가 천미선 등이 각각 연기와 안무 특강 등을 진행했으며 TV 스튜디오 체험, 라디오 녹음 체험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현재 CTS JOY어린이영어합창단은 본사팀(CTS), 김포팀(주논교회), 부산팀(기장로교회), 안성팀(안성중앙교회), 김북팀(영광성서침례교회), 서초팀(신에감리교회), 노원팀(빛가온교회), 하나로팀(김포하나로스쿨), 의정부팀(늘푸른진전교회), 삼척팀(큰빛교회), 동두천팀(동성교회), 은혜와사랑팀(은혜와사랑교회), 대전엘리트팀(한진희 지휘자), 성북팀(예일교회), 수지팀(갈릴리교회) 그리스팀(양양대 선교사) 등 16개 팀이 운영 중이며 올해 중에 대전팀(예들교회), 용산팀(만리현성결교회), 청주팀(서남교회), 원주팀(충정교회) 등 전국에서 20개 이상의 팀이 추가로 창단될 예정이다.

문의 : (02)6333-2588, www.joychoir.org, joychoir@cts.tv



배우 정해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기부 인연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는 배우 정해인의 팬모임으로부터 꾸준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8월 26일(월) 밝혔다.

배우 정해인의 팬모임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실천한 기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정해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생일 당일인 2019년 4월 1일 정해인 팬모임 'EVER☆정해인(구 달님보다 한남)'에서 임양대 기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것이다.

또한 6월 5일에는 드라마 '봄밤' 제작발표회에서 사 용된 쌀화환의 쌀 100kg을 임양대기아동을 위해 사용 하도록 2차 후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7월 4일에는 또 다른 정해인의 팬클럽이 쌀화 환 브랜드 '드리미(*)'를 통해 쌀 300kg을 홀트아동복 지회로 지정 기부하기도 했다.

7월 26일에는 정해인 팬모임 '정해인의 핸더랜드'가 배우의 데뷔 6주년을 기념, 미혼취부모가정을 위한 후원금(2,013,726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했다.

최근 종영된 MBC 드라마 '봄밤'에서 정해인이 미혼 부 역할을 연기한 것이 후원의 계기가 됐다.

총 4차례의 후원으로 배우 정해인의 팬들과 홀트아 동복지회의 뜻깊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배우 정해인은 오는 8월 28일 주연을 맡은 영화 '유 열의 음악앨범'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0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9.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9. 9. 0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9. 9. 26(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9. 8. 30(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0. 2. 10(월)~11(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의 목사 이석호

‘피터스 목사 기념 심포지엄’ 열려

구약 한글성경 번역자 ‘피드’ 목사를 아십니까?

‘한글 발전사’에서 한글 성경의 번역과 보급은 현대 한글의 발전과 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신약성경의 경우,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이는 존 로스 목사다.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교회는 경기도 용인에 ‘로스 기념관’을 건립해서 그의 공적을 기리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구약의 경우는 어떤가? 구약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이에 한교총은 구약성경 한글 번역자로 한글 이름이 ‘피드’인 알렉산더 A. 피터스 목사를 알리기 위해 심포지엄 ‘기억해야 할 구약 성경 번역자 알렉산더 피터스’를 지난 8월 22일(목) 오후 새문안교회 새문안홀에서 개최했다. 피터스 목사에 대한 배경은 연세대 구약학 명예교수인 박준서 박사가 했다. 박준서 박사는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이기도 하다.

박 교수의 발제에 의하면, 1871년 러시아(오늘날은 우크라이나)의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피터스 목사는 1895년 5월 당시 미국성서공회 일본 책임자였던 헨리 루미스 목사의 권고에 따라, 권서(勸書, 성경을 팔며 전도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한국으로 왔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꼭복음’을 팔면서 한국말을 익히기 시작했다. 특출한 어학능력을 타고난 그는 한국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한국어를 완전히 통달했다. 당시 한국에는 한글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아직 없었다.

그는 권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그가 애송하던 시편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두 편의 시편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들을 모아서 1898년 시편합일을 출간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구약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다.

미국으로 가서 매킨톡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1904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피터스 목사는 성경번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약성경 번역 작업에 동참했고, 1911년 최초로 구약 전체가 한글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출간되었다. 이후 한글성경을 가다듬고 수정하는 개정과 개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진하던 중, 1926년 피터스 목사가 ‘평생 위원’으로 개역 사업에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1931년부터 개역 작업은 피터스 목사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마침내 1938년 개역구약성경이 출간되어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



몽골복음화 위한 아이막 연합 대성회

몽골복음화를 위해 게르성전건축운동과 강대상 보급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는 2019년 8월 몽골 서부 읍스 아이막을 향해 왕복 3,400여 km 복음 대장정에 올랐다.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몽골복음주의협회와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는 읍스 아이막에서 <몽골복음화를 위한 '2010' 운동 5개 아이막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다. ('2010' 운동은 2020년까지 몽골 복음화를 10%를 목표로 몽골 전체 교회의 합심 기도운동이다) 몽골 동부 5개 아이막(=도) '읍스, 바양울기, 흠드, 고

비 알타이, 자브항'의 교회들이 복음 확장을 위한 연합과 협력을 위해 각 지역에서 12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법인회)장 김동근 장로는 게르성전 5동과 강대상 38개를 싣고 육로로 이들을 달려 읍스 아이막 올란검시에 도착했다.

특별히 이번 복음 대장정에는 몽골복음화를 위한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의 게르성전건축과 강대상 보급운동에 동참한 한국의 광명 오병이교회(위임목사 권영규)의 후원으로 준비됐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복음가수의 꿈을 이루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남바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 광장에서, 공원에서, 세트전도로 영혼구원을 위해 전도하였는데, 50세가 넘은 나이에 복음가수가 되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르던 어릴 적 시절 꿈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노래를 곧잘 한다며 가수라 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로부터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가족세트전도를 하는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박 목사의 도움으로 세트전도전분 복음가수로 등단할 수 있도록 레슨을 받고, 전도집회 교회와 현장에서 찬양으로 최선을 다하였더니 복음가수의 길이 열렸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한 복음가수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빌 4:13).

“기쁨으로 여호와의 섬김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자이다”(시 100:2).

생명 살리는 일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실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가르쳐 준대로 전도했더니 우리 밴델교회에서도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19).

가족세트전도 복음가수 서경란 전도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생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한일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세 번째 생মন눔예배 드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생명 나눔으로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명 나눔으로 이웃과 나누는 데 앞장서는 교회들의 소식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교회(담임 오계강 목사)가 지난 8월 11일 주일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를 초청, 생মন눔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했다.

‘말까지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오계강 담임목사는 “지난 40년간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자”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 받은 은혜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생명 나눔 사역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오목사는 자신이 과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이후 더욱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게 된 사연을 전하며 이날 추가로 인체조직기증을 희망 등록했다.



담임목사의 솔선수범에 성도들 역시 마음을 함께해 143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앞서 지난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 생মন눔예배를 드린 바 있는 한일교회는 이날 세 번째 예배까지 모두 518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성도가 생명 나눔 사역에 함께한 만큼 향후 소원한 성도가 생길 경우, 교회 차원에서

각막기증 연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전호교회(담임 김효남 목사)에서도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어졌다. 이날 예배에서는 ‘복음’ (요 3:16)을 주제로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이어진 서약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완전한 복음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성도들은 영상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생명 나눔을 실천한 주인공들의 사연과 새 생명을 선물 받고 살아가는 이삭인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그중 82명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함으로써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전북 군산시 주님의교회(담임 정진관 목사) 등 전국에서 생명 나눔의 소식이 이어져 하루 동안 245명이 생명 나눔 사역에 힘을 합쳤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생명 나눔 사역에 담아 준 교회들에 감사하다”며 “이들을 통해 흘러간 생명 나눔에 복음이 얹혀 이 땅에 소망이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제3회 국제 기독교 방송 미디어 콘퍼런스

“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에서 주최하고 한국교회방송기술연합회가 주관해 개최되는 <제3회 국제 기독교 방송미디어 콘퍼런스(이하, ICMC)>는 ‘교회 미디어로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에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교회 방송 미디어가 단순한 기술과 도구를 넘어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

이며 사역임을 한국교회에 알리기 위해 ICMC는 시작됐다. 급변하는 미디어 변화 속에서 세상과 다음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국 교회의 미디어 사역자들과 목회자 500여 명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ICMC 메인 주제 강의 강사 마크 체크(4B Media 공동대표/Hope Unlimited Church 수석목사)목사는 직접 운영중인 4B미디어 사역을 소개하며 “미디어 사

역자 모두가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가진 주인공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탁월하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감경철 전교사(울산대영교회), 김병삼 목사(담임, 만나교회), 지용근 대표(지앤컴 리서치), 황인권 대표(인원앤파트너스), 김태훈 목사(담임, 한주교회/커뮤니온 대표)가 나섰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추계세미나 및 야유회

특강

설교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9월 24일(화) 1박 2일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031-298-3739)

대상 전국 여교역자국

문의 국장 백영자 목사 (010-3638-0120)

계좌번호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회비 일만원(접수시 입금)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하나님과 동역하라”
- 고전 3:9 -

2019년 추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9월 23일(월)	9월 24일(화)
07:00		
08:00		식사
09:00		폐회예배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개회예배 설교 : 신재영 총회장	곤지암 화담숲으로 출발 ↓ 도착 후 점심식사 ↓ 화담숲 거닐며 힐링을~~~
16:00		
17:00	제1강의 강사 : 조용목 정책위원장	
18:00		
19:00	저녁식사	
20:00	제2강의 & 기도회	
21:00	강사 : 김용덕 증경총회장	
22:00		

모시는 글

할렐루야!

전국 각지에서 복음의 나팔이 되어 헌신하시는
동역자인 여교역자 여러분!

오는 9월 23~24일 (1박2일),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년 중 9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한창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인데다가,

우리 여교역자 여러분을 만나 뵙는 절기와도 같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기록에 의하면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신 때’가 9월이었으며(학 2:10),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신 때’ 또한 9월이었습니다.(스 7:1)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우리 전원성전에 모두 오셔서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의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운영부장



예배부장



선교부장



복지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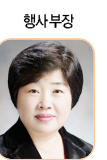
재정부장



행정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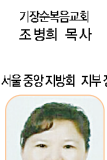
기획부장



행사부장



서울중부지부장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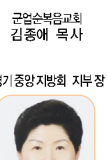
서울중앙지부장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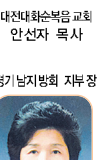
서울강남지부장 지부장



경기지부 지부장



경기중앙지부 지부장



경기남지부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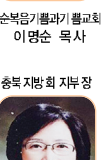
경기북지부 지부장



일산지부 지부장



대전지부 지부장



충북지부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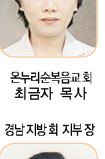
시정파랑교회
홍현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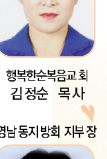
예수향교회
정예스더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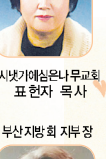
순복음시정교회
이현옥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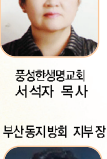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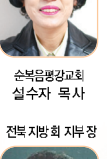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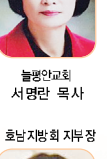
풍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실수자 목사



목자교회
김해시바 목사



늘봄교회
서명란 목사



충남지부 지부장



충서지부 지부장



충주지부 지부장



경남지부 지부장



영남동지부 지부장



부산지부 지부장



부산동지부 지부장



전북지부 지부장



광주지부 지부장



호남지부 지부장



은진지부 지부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은 영혼 살리시사 영생을 주셨으며,
지혜를 부어 주사 편히 살게 하셨으며,
육신을 고치사 웃고 살게 하셨으며,
믿음을 주시사 감사하게 하셨으며,
눈 열어 보게 하고 귀 뚫어 듣게 하여
소망 갖게 하셨으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호자 되셨으며,
만물을 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사랑으로 채우시니 복 되도다 하오리다.

손잡아 이끄시고
앞길 비춰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셨으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피 값 주고 사신 인생 귀히 여겨 주시고,
만세 전에 택하사 구별하여 두셨으며,
주님 알게 하셨으니 감당 못할 은혜로라.
입을 열어 찬송하고
몸과 맘을 다 드린들 어찌 감당하오리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영광 받으소서!

중국 대련에서
이제인 씀

목회자 평생교육

문찬우 목사 // 예하성 목회자평생교육위원

이름과 잃음의 한 곳 차이

빌 3:12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연인에게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보통 이 말을 듣게 된 상대방은 - 자신이 수년간 관계했던 사람을 모르고 있다는 말에 - 크게 당황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아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우리는 상대의 내면이 아닌 오직 외면을 보고 상대하고 판단할 뿐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쩌다가 상대의 현재 생각을 파악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란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객교수 주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저서 「슬픈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버려라". 누군기를 파악해 버리거나, 그를 완벽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획득이나 완성보다는 상태를 지향하는 유지(維持)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의 명문장입니다. 성경 안에도 '오만과 편견으로' 이미 대상을 파악했고 그 관계를 성취했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바리새인들이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주의의 시작은 꽤 괜찮았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됐다(separated)라는 뜻으로 세속과 구분된 참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토라 중심의 경건주의자들이었던 하시딤(Hasidim 경건한 사람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목말라 했으며 온전한 믿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들이 신학과 사역에 대한 일가견을 이뤘다고 자부하기 시작한 때부터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가난한 심령들의 요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과 잃음의 교차점은 이처럼 미묘한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는 유명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개혁의 주동자가 공이여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름과 잃음은 그어필로 한 곳 차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 3:12) 구원을 이미 끝내버린 획득이나 완성으로만이 아니라 건강한 긴장을 지닌 과정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孔子, BC. 551 - BC. 479)도 '열다섯 살부터 학문을 시작했지만, 일흔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고 고백한 바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따르는 일에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복음적인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 필요하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설

안보는 철저한 대비가 우선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일방 파기는 심각한 안보 저해 행위로 비쳐지고 있다.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나라와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한·일 갈등과 연계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안보와 결부시켜 국민 안위까지 위협받게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그 결과로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일본 아베 정권을 거드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우려하게 된다. 한·일 갈등이 안보로 발전선 안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역사를 통하여 국가의 안보 위기를 지혜롭게 대비하거나 극복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6.25전쟁 모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굴욕적인 패배를 겪어야 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과거 시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모두는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단결하여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고자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는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의 핵포기 선언만 믿고 평화를 기대하는 건 환상을 좇는 일이다. 거듭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진전은 없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핵 인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바른 판단을 통해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냉정히 설정해야 한다. 헌법 66조 2항에 명시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보다 일본에 대한 감정과 정치적 이익을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철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 정치인, 전문가들을 지지하고, 그 반대의 사람은 비판해야 한다. 선거가 열리면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안보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믿을 곳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대하 20:15)

연세대학교 젠더 교육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권 교육 지원법'이 계류 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기에, 입법기관에서도 선뜻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의 강행 방침에 대하여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 합의 되지 않은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연합'에서는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가자들 가운데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하였다. 또 기독교 진리의 말씀과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성경에 반하는 젠더 교육을 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1885년 알빈 의료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 '광혜원' '제중원'에서 비롯된 연세대학교의 건학정신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는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연세대는 이처럼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학교이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학의 명문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독교 정신에 금이 가는 모습의 학교가 된다는 것은, 연세대의 재학생과 동문과 기독교계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연세대는 이제라도 그런 비틀어진 인권교육을 강행하기 보다는, 참다운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와 이를 포함한 젠더교육이, 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교육은 자칫하면, 건전한 교육과 건강성을 지닌 지도자로 양성하기 보다는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약한 본성을 자극하는 유희(유희)한 교육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학교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일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9th **훌륭한 군사**

더 **의식** 하라

The consciousness

일시- 9월 11일~14일

대상- 19세이상 청년

회비- 가져왔으니 가져주라

장소- 괴산 순복음교회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인터뷰후 등록 010-5145-3816

제 1회 총회목회자 평생 교육 과정 목회자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6)

주최 : 사)예수교 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주
강
사



조용목 목사

-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이사장
- 세계하나님의성회 협의회 실행위원
- 한국신학회 이사장
-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정책위원



정삼운 교수

- 전 성결대 총장(제5,6대)
- 현 성결대 신학부 교수
- 현 한국신학회 회장

일 시 : 2019년 10월 17일(목) - 18일(금)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 (바울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전화 : 031)298-3739

대 상 : 본교단 소속 원로목사, 담임교역자, 부교역자

접 수 : 인터넷 신청 교단홈페이지 (www.aogk.org)

입 금 : 회비 50,000원 / 농협 352-1649-7314-33 김용덕(목회자평생교육원)



강
사
진

김용덕 목사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원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영동제일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교역자, 영상국장

박 건 목사

예일여자중학교, 전 교육 미가엘교회 담임

김인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경총회장
침신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새김교회 담임

이연주 의원

국회의원 무소속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적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진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9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중경총회장	중경총회장	중경총회장	중경총회장	중경총회장	중경총회장	중경총회장	중경총회장	중경총회장	중경총회장	직선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중경총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연 목사 (성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정부용 목사 (서소민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단 목사 (진주은혜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연 목사 (진주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광강교회)	김인준 목사 (청신교회)	김양인 목사 (복암제일교회)	임종연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세리전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한원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북진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연 목사 (한민사목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광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영강교회)	백정자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광명교회)	박정복 목사 (오성사당교회)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환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신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우광덕 목사 (해미루대경교회)	최남성 목사 (동경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혜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이희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정환우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배용환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오보에 목사 (소망농아교회)	정예스터 목사 (예수왕기기도원)



이형은 목사
(은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